

일어에는 다행히도 이 경우 중성의 복수 1격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에 그러한 관사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더 복잡한 경우는 (24나) (24다)와 같은 경우이다. (24나)는 [[Der Poet] und [Novellen-dichter]가 실제로 한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 동사가 단수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24다)도 [[Der Poet] und [Tänzerin]]이 실제로 단수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인 ‘ist’가 쓰인 것이다.²⁴⁾ 종래의 명사구의 핵을 D로 상정하여 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4다)의 경우만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6) 가. [[Der Poet] und [Tänzerin]]

나. [[Der(남성, 단수, 1격) Poet] und [e_i (여성 단수 1격) Tänzerin]]

다. [e_j ((남성/여성), 복수, 1격) [Der(남성, 단수, 1격) Poet] und [e_i(여성 단수 1격) Tänzerin]]

(26나)는 ‘der Poet’와 ‘(die) Tänzerin’이 성의 차이를 가짐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26가)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도 (25)와 같이 등위 접속된 전체 명사구를 대표하는 DP를 상정한다면, 그 핵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나타내는 공범주 관사이거나 성 범주를 가지지 않는 공범주 관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관사는 독일어의 외현적인 관사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공범주 관사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에 대한 기술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부당하게 ‘결정사구(DP)’라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후쿠이[Fukui] (1986)의 예를 다소 바꾸어 그 범주 표시를 자세히 하여 보기로 한다.

(27) 가. [DP [SPEC e] [D' [D 's] [NP the enemy [N' [N destruction] [PP [P of] [the city]]]]]]

나. [DP [SPEC e] [D' [D 's] [NP the enemy [N' [N destruction]



[PP [P of] [the city]]]]]]

24) 여기서도 수의 일치와 관련되는 현상만을 문제삼기로 한다.

- 다.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라. the city's destruction by the enemy

(27가)는 (27나)의 기저 구조이다. DP의 핵은 D이며 그 위치에 상정된 것은 's이다. DP의 지정어(SPEC) 위치는 비어 있다. 핵 명사 destruction이 가지는 모든 논항은 NP 속에 모두 상정된다. 후쿠이(1986)적인 설명의 하나는 N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the enemy는 격을 가지지 못하므로, 격을 받기 위하여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된 것이 (27다)이다. (27라)는 이른바 명사구 내적인 피동 변형으로 NP 속의 보어인 the city가 D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설명된다.

문장과 명사구 사이의 평행성을 추구하는 입장에는 명사구 안에서의 피동 변형은 평행성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성의 측면에서 결함을 가진다. 이는 애브니(1987)에서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나, 애브니(1987)은 (27라)와 같은 예에 크게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8) 가. yesterday's destruction by the enemy
 나. Mexican destruction of the city
 (29) 가. John's refusal of the proposal
 나. *the proposal's refusal by John
 (30) 가. John's study of Music
 나. *Music's study by John

(28가)는 시간 표시어가 속격 성분으로 나타난 예이다. 시간 표시어가 이동에 의하여 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적어도 그것은 문장과 명사구에 있어서의 평행성의 원리를 어긴다. (28나)는 NP 속의 행동주가 형용사로 나타난 경우이다. 형용사의 쓰임은 NP 속의 행동주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명사구 내부에 이동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29)는 단순 명사에서의 보어의 이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며, (30)은 파생 명사구에서의 보어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보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명사구 안에서의 피동 변형은 없는 것이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명사구를 DP로 상정하고 DP의 핵을 D로 상정하는 결정사구 가설의 치명적인 약점은 격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²⁵⁾ DP 논의는 (27가)와 같은 명사구만을 따로

때어서 그 핵을 따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명사구가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the enemy가 인상된 뒤의 구조인 (27나)를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 그것이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 예를 더 보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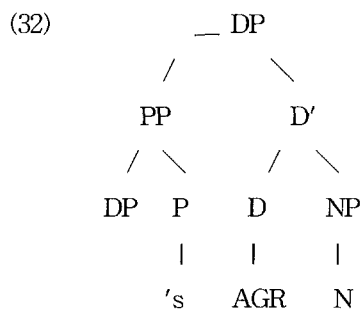
(27) 나'. [DP[_{SPEC} the enemy_i] [D' [D 's] [NP t_i [N' [N destruction] [PP [P of] [the city]]]]]]]

(31) 가. [DP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was terrible.

나. I hated [DP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31가)는 (27나')이 주어 위치에 나타난 것이며, (31나)는 그것이 목적어의 위치에 나타난 것이다.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그 핵은 이미 D인 's이다. 핵의 격 자질이 구범주에 삼투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31가)의 주어 DP의 격은 속격이 된다. 그러나 주어 DP가 속격을 가진다는 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어가 AGR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주격을 배당받는다고 하여 보자. 이 주격은 속격을 핵으로 하는 DP에 배당되게 된다. 주어 DP는 속격과 주격의 두 격을 가지게 된다. 있을 수 없다. (31나)에서도 격의 종류만 달라질 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목적어 DP는 속격인데, 다시 목적격을 받아야 한다.

애브니[Abney](1987:81)이 (27다)와 같은 구성에 대하여 상정하고 있는 구조를 가져 오면 다음과 같다.



25) 안회돈(1997:57 및 주 11)에서는 명사구가 격을 받기 전에는 D의 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D의 투사가 격의 투사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추측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애브니(1987)적인 DP 범주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결론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32)에서 D는 DP의 핵이다. 그 밑에 AGR은 그것이 일치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AGR이면 AGR이지, 그것이 왜 D 밑에 오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D가 AGR이면 (32)에서 DP는 AGRP이다. D를 AGR이라고 함으로써 애브니[Abney](1987)에서는 불가사의하게 D와 's를 통합시킨 것과 같은 범주가 탄생한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the와 's는 하나의 범주로 합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속격 조사 '의'와 지시사 '이, 그, 저'가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없는 것과 같다. (32)에서 속격은 D인 AGR에 의하여 배당된다.

(32)와 같으면 혹 주어 DP나 목적어 DP가 주격이나 목적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D가 바로 속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가 주격이나 목적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속격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32)에서 만약 D가 속격을 배당하는 요소라면, 그것이 다시 주격이나 목적격을 받는다는 것은 스토웰[Stowell](1981)의 '격 저항 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DP 가설은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의존하여 언어를 기술한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정사구 가설은 절대로 끝까지 검증된 것이 아니며, 언어 현실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주이다.

3.3.3. 일치소와 굴절의 문제

폴록(1989) 및 촘스키(1988) 이후 한국어에도 일치소(AGR)를 상정하는 것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도중에 촘스키(1995)는 AGR를 버리고 있다. 이제 국어의 문법 기술에서도 곧 AGR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을 보듯한 일이다. 언어에 따라 다른 범주가 있을 수 있고 또 대체로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범주가 있을 수 있다. AGR은 결코 보편적인 범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구어에 대하여 촘스키가 설정하는 범주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한국어에도 그것을 설정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 기술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촘스키(1988) 이전, 결속 이론의 확대를 시도한 양동휘(1983:172)에서는 한국어에 AGR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²⁶⁾ 양동휘(1983)에서 한국어의 AGR에 관한 언급을 가져오면 (33)과 같다. 관련 예를 (34)에 보이기로 한다.

26)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국어에 AGR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영세(1986)이다.

(33) 양동휘(1983)과 국어의 AGR 결여

가.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는 AGR이 없다. 이는 단순히 이들 언어에는 AGR 형태소가 없기 때문이다. (양동휘(1983:172, 주 7)

나. AGR을 결한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시제문 조건(Tensed-S Condition)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큰주어(SUBJECT)에 의한 '지표 안의 같은 지표(i-within-i)' 접근성 조건의 문체도 생기지 않는다. (양동휘(1983:172))

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자료[아래의 (34)와 같은 예를 말함]는 이들 언어가 AGR을 결하고 있다는 우리의 최초의 가정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없이는 이들 자료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동휘(1983:173-4), 밑줄 필자)

(34) 가. 그들이 [그들이 서로_i, *i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양동휘(1983)의 예, 문법성 판단도 그에 의함)

나. 그들은 [서로_i의 아이가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양동휘(1983)의 예)

양동휘(1983)에 의하면, (34가)는 교호사(혹은 상호사) '서로'가 내포절 주어와 동지표된다. 양동휘(1983)에는 이들 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결국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33다)만으로는 (34가)에 AGR이 없다는 가정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 (34가)에서, '서로'가 그것이 속한 내포문에서만 그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면((34가)의 문법성 판단은 이를 말한다), (34가)는 AGR을 가정하는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AGR을 가정해도 그 지배 범주는 내포문으로 제한되며, 양동휘(1983)에서와 같이 성분-지휘 '최소 큰주어(minimal SUBJECT)'의 성분-영역(c-domain)이라는 것으로 그 영역을 제한해도 그 지배 범주는 내포문으로 제한된다. 차이가 없다. (34나)는 영어와 같으면 촘스키(1981)의 '지표 안의 같은 지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예이다. AGR이 있다고 가정해도 '서로'의 선행사는 상위절의 '그들'이 될 수 있다. AGR이 없다고 가정해도 내포절에서 최소 큰주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상위절의 '그들'이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차이가 없다. 적어도 (33다)는 약화된다. (34가, 나)가 과연 AGR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지 의심스럽다.

국어가 AGR를 가지지 않는 언어라는 언급은 통제 문제를 다룬 양동휘(1985)에서 다시 되풀이된다.

(35) 양동휘(1985)와 국어의 AGR 결여

가. 주어 자리를 지배하는 것은 AGR이라는 가정 아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이 AGR이 없는 언어에서 주어 자리는 항상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양동휘(1985:401))

나. 양동휘(1983)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에는 결속 이론과 관련하여 AGR이 없음을 보였다.

다. 이들 언어에는 주어-동사 일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들을 이른바 PRO-탈락 언어라고 할 수 없다.

(36) 가. *[우리가 PROarb 속이는 것]-은 나쁘다. (양동휘(1985:401) 참조)

나. [PROarb 사람을 속이는 것]-은 나쁘다. (양동휘(1985:399) 참조)

국어에서 주어 자리는 지배를 받지 않는 자리이므로((35가)에 의한다), (36나)와 같이 PRO가 나타날 수 있고 자의적 지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적어 위치는 그렇지 않다.²⁷⁾ (36가)는 자의적 지시 해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이 촘스키의 이론을 국어에 적용하기 위한 야심찬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만에 하나 국어를 희생시킨 것은 없었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국어에 사실로 AGR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국어에 AGR이 없다는 가정을 세워 그것으로 촘스키(1981)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과는 단지 문제의 접근 방식만이 다른 것은 아닌 것이다. 국어적인 직관의 문제는 그러한 차이가 빚어내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예만을 보기로 하자.

(37) 가. 그 남자 둘 i은 [그 여자 둘j이 섰로j, ?i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나. 인간이 [e] 속이는 것은 나쁘다.

(37가)는 (34가)와 평행적인 예이며, (37나)는 (36가)와 평행적인 예이다. (37가)에서 ‘서로’는 ‘그 남자 둘’을 선행사로 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7가)가 다소 이상을 가진다면, ‘그 여자 둘’을 주체로 하여 ‘그 남자 둘’을 교호적인 관계로 묶는 의미 관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호사 대신 재귀사를 넣으면 그 성립은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된다. 이것이 AGR의 존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²⁸⁾ (37나)

27) 양동휘(1985:401)에서는 담화 결속(discourse-bound)의 경우, 목적어에도 PRO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때는 자의적 지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28) 이 이론의 약점이나 국어적인 예에 대해서는 임홍빈(1987)을 참조하기 바란다.

는 총칭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경우 목적어 대상은 자의적 지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목적어 위치는 지배받는 위치라는 데도 이렇다.

결속 이론 및 통제 이론과 관련하여 국어에 있어서의 AGR의 결여와 그 설명력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하자.

(38) AGR의 결여에 대한 가정과 문법 기술의 설명력

가. 국어에 AGR을 가정하지 않으면, 지배 범주(혹은 결속 범주)가 하위절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어 결속 현상이 잘 설명된다.

나. 국어에 AGR을 가정하지 않으면, 주어 자리가 지배되지 않아 통제 현상이 잘 설명된다.

이제 국어에 대하여 AGR을 상정한다면, (38)을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에 AGR을 상정한 일련의 논의들, 가령 최현숙(1986, 1988), 한학성(1987, 1993), 윤종렬(1990), 유동석(1993), 양동휘(1994) 및 이선우(1994) 등에서 이 문제는 주목되지 않고 있다. AGR 상정의 기본적인 동기는 주격 배당과 관련된다. 영어의 주격이 AGR에 의하여 배당되듯이 국어에서도 AGR에 의하여 배당된다.²⁹⁾ 국어는 영어와 아주 비슷해진다. 한학성(1987:73)은 성, 수, 인칭의 복합체만이 AGR이 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으)시-’가 주어의 존대 자질을 되찾게 하므로, 그것을 AGR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국어에 AGR이 있다는 증거라고 한다. ‘-(으)시-’가 주어를 존대한다는 것이 왜 국어에 AGR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윤종렬(1990: 35)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매개 변형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어는 인칭과 수의 AGR이 있는 데 대하여, 프랑스 어와 아랍어에는 인칭과 수 및 성의 AGR이 있고, 한국어에는 존대의 AGR이 있다는 것이다. 국어는 유형적으로 영어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언어의 보편성에 관한 지지가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국어는 영어와 거의 완전히 같은 것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가정 때문이다.

(39) 가. 국어에는 AGR이 있다.

나. 국어에 주어-동사 일치소는 ‘-(으)시-’이다(혹은 복수 표지 ‘들’이다).³⁰⁾

29) 국어에서 AGR의 설정에 반대한 초기의 논의로는 강영세(1986)이 주목된다.

30) ‘들’을 ‘-(으)시-’와 함께 [+Agr]의 실현으로 본 것은 최현숙(1987)이다. ‘들’의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들’은 어미 관련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국어의 주어 위치는 AGR에 의하여 지배된다.
 라 국어의 주격은 AGR에 의하여 배당된다.

(39)에 의하면 국어와 영어의 다른 점은 (39나)의 ‘-(으)시-’라는 어휘재박에 없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국어와 영어와는 더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39)를 볼 때, (39)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9가)이다. 국어에 AGR이 있다고 가정하자마자 국어는 영어와 동일한 언어가 되기 위한 순서를 밝기 시작한다. 그러나 과연 국어에는 AGR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40) 가. 나의 눈에도 저 멀리에 있는 아버님이 보인다. (박양규(1975) 참조)
 나. *나의 눈에도 저 멀리에 있는 아버님이 보이신다.
 다. *너는 아버님이 보이시니?
 (41) 가. 저기 너희 선생님이 온다.
 나. 저기 너희 선생님이 오신다.
 (42) 가. 아버님의 말씀이 떨어신다.
 나. *아버님의 다리가 기시다.

(40가)는 아주 중요한 예이다. 주어가 존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술어에 ‘-(으)시-’가 쓰일 수 없다. ‘-(으)시-’가 쓰이는 경우, 그것은 (40나)와 같이 ‘나’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40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다. (40가)의 ‘아버님’은 단순히 보이는 대상일 뿐이다. ‘-(으)시-’의 문제가 경험 표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41가)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데도 ‘-(으)시-’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특별히 문법성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는 또래들끼리의 담화에서는 (41가)가 흔히 쓰인다. 실제로 그렇다. 이들에게 (41나)와 같은 용법을 강요하는 것은 문법이 아니다. (42가)는 주어가 ‘말씀’인 경우 ‘-(으)시-’가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며, (42나)는 주어가 ‘다리’인 경우 ‘-(으)시-’의 쓰임이 이상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소박하게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으)시-’를 일치소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예들을 소박하게 관찰한다면, ‘-(으)시-’ 문제가 결코 일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³²⁾ 일치 현상처럼 보일 뿐이

31)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이것을 일치 현상으로 보려는 것은 서구어 문법에 의한 영향 때문이며, 국어를 서구어와 같이 기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42)와 같은 예들에 대하여 유동석(1994:234)는 이에 자질 공유 현상을 상정하였다. 피소유 명사가 분리 불가능한 것일 때, 소유주의 자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님’과 ‘말씀’이 분리 불가능한 것이면, ‘말씀’이 ‘아버님’의 자질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버님’과 ‘말씀’이 ‘아버님’과 ‘다리’보다 더 분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말씀’은 따로 기록해 둘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하는 ‘아버님’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동안의 AGR 논의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버님은 약점이 잡히셨다’와 같은 예를 보면 간접 존대나 자질 공유에 의한 설명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약점’까지 존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9다, 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AGR이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도 그것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주어나 주격은 ‘-(으)시-’가 없는 문장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AGR 논의는 이렇게 가정하는 것에 별다른 저항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으)시-’가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 ‘-(으)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어의 문법 형태는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³²⁾

(43)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

국어의 문법 형태는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

이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상정할 수 있다.

(44) 형태 가정 금지 조건

그것이 있다고 가정할 만한 필연적인 증거나 흔적이 없는 한, 그것이 없는 곳에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여 문법을 기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들이 문법 기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예에서 보기로 한다.

32) 시정곤(1992) 및 최소 이론에 입각한 윤만근(1997:277~279)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볼 수 있다.

33) 이 문제는 임홍빈(1997)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45) 가. 아버님이 간다.
 나. 아버님_ 가신다.
 다. 아버님께서 가신다.
 라. 상감마마_ 듬시오.

(45가)에는 ‘-(으)시-’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으)시-’는 없는 것이다. (45가)에 대하여 ‘-(으)시-’가 있다고 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으)시-’는 없어도 그 자리는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으)시-’가 없으면 그 자리도 없는 것이다. ‘-(으)시-’는 스스로 그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고 스스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으)시-’가 없어서 ‘아버님’을 존대하지도 않는데, ‘-(으)시-’가 있을 때와 똑같이 주격은 배당된다는 논의는 형태가 없이도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45나)에는 주격 조사가 없다. 그런데도 주격은 배당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가정하면, (45나)의 표현 가치는 (45다)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45다)는 될 수 없다. (45나)에는 ‘께서’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가 (45나)에도 적용된다. 거기에 ‘이’가 있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45나)는 그 자체에 고유한 표현 가치를 가지는 독립적 존재이다.³⁴⁾ (45라)에는 절대로 주격 조사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46) 가. 어서 이것 좀 드셔.
 나. *나는 집에 가__ 싶다.
 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라. 나는 집에 갈까 싶다.
 (47) 가. *나는 그것을 먹__ 보았다.
 나. (*나는 넥타이를 매__ 보았다.
 다. 나는 넥타이를 매어 보았다.
 라. 나는 넥타이를 매고 보았다.

34) 이는 안병희(1965나)에서의 ‘부정격’ 논의를 상기시킨다. 형태 표지가 없이 통합만으로 격이 표시되는, 주격, 대격, 속격의 경우, 일반적인 통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표지의 존재와 결여에 대한 가치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좀더 강력한 것이다. 형태가 없으면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6가)에 완전한 ‘-(으)시-’는 없다. 그러나 ‘-셔’는 있다. ‘-셔’에는 ‘-(으)시-’가 들어 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46나)에는 ‘가_’ 뒤에 아무 것도 없다. ‘가_’ 뒤에 무엇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것이 성립한다고 기술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46다, 라)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형태가 쓰여야 한다. (47가)에는 ‘떡_’ 뒤에 아무 것도 없다. 여기서도 ‘떡_’ 뒤에 무엇이 있다고 가정하여 그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47나)의 ‘매_’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³⁵⁾ 거기에 정말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면 (47나)는 어떠한 성립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47나)가 (47다)와 같은 의미로 성립하는 것이라면, ‘매_’ 뒤에는 보상적 장음화가 있는 것이다.³⁶⁾ 어떠한 일이 있어도 (47나)를 (47라)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39나-라)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43)의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궁극적으로 (39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으)시-’의 쓰임이 문장 속의 다른 요소에 대하여 통사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동석(1993, 1994, 1995)은 허웅(1958, 1963나, 1975)에 따라 중세어의 주어 일치소의 하나로 다시 ‘-오/우-’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중세어에는 주어 일치소가 두 개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는 ‘-(으)시-’이며, 다른 하나는 ‘-오/우-’이다. 두 가지 예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48) 가. 내 므슴미 이 곧호니[곧ㅎ+오+니] (법화경언해 2: 216-7)

나. 부텃 므슴미 평등ㅎ사[평등하+시+어] (금강경언해 18)

(48나)에서 ‘平等ㅎ사’의 ‘-시-’는 현대 국어와 같다. ‘-시-’가 일치소라면 중세어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데 허웅(1958, 1963, 1975)에 의하면 ‘곧호-’의 ‘-오-’도 주어가 1인칭일 때 나타난다. 이에 의하여 유동석(1993, 1994, 1995)은 ‘-오/우-’를 주어 일치소의 하나로 보았다. 중세어에는 주어 일치소가 둘이나 된다. 무엇 때문에 주어 일치라는 순수히 추상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가 둘이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서구어적인 일치란 무조건적인 것이다. ‘-오/우’가 1인칭 어미라면 그것은 주어가 1인칭이면 무조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48가)의 주어는 1인칭이 아니다. ‘내 므슴’은 1인칭이

35) 고영근(1997:83)에 제시된 예의 하나이다. 영의 이형태가 어떤 제약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뚜렷한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언급이 있다.

36) 이에 대해서는 이병근(1976=1979)이 참조된다.

아니다. 유동석(1994)는 이에도 자질 공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설명이 부가되면 그것은 이미 통사적인 일치가 아니다.

(43)의 형태 기능의 고유성 조건에서 볼 때, ‘-(으)시-’가 주어 일치소가 된다는 것과 ‘-오/우-’가 주어 일치소가 된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으)시-’는 높임의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오/우-’는 순수히 통사적인 기능만을 행하는 추상적인 요소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예로 본다면, ‘-오/우-’를 가진 예와 안 가진 예는 다음 예에서 ‘가노라’와 ‘간다’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 (49) 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나. ”간다,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다. 나 간다, 애들아. 내년에 다시 보자.

(49가)와 달리 (49나)는 이상을 가진다. 그러나 (49다)는 이상이 없다. ‘가노라’를 의고적인 어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³⁷⁾

다음에 ‘전초’를 뒤에 가지는 관형 구성의 예 몇을 보이기로 한다.

- (49) 가. 이 多寶 佛이 寶塔에 겨샤 상네 十方에 노니샤몬 이 經 爲_호신 전초시니라 (법화경언해 4: 140a)
 나. 王子 | 讚歎_호스와 니르샤타 衆生 濟度호물 爲_호산 전초로 無量億世예샤 그제샤 成佛을 得_호시니라 호시니 (법화경언해 3:92b-93a)
 다. 大雄猛世尊이 諸釋_호 法王이시니 우릴 어엿비 너기시논 전초로 佛音聲을 주시니 (법화경언해 3: 64b)
 라. 衆生이 法 中에 佛道 因緣 심구문 能_호 法藏 디니신 전초로 한 類 힘 니 브리로다 (법화경언해 4: 55b-56a)

허웅(1958, 1963, 1975)에 의하면 관형질의 ‘-오/우-’는 인칭 활용이 아니라 대상 활용이다. 관형질의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에서 목적어로 환산될 수 있을 때 쓰이는 것으로 성격지어진다. (49)는 어떤 예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전초’는 위의 예에서 관형절 내부의 목적어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49나)의 ‘爲_호산’이나 (49다)의

37) 임홍빈(1980)에서 ‘-오/우-’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너기시논’의 ‘-오/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1인칭 어미인가? (49)의 예는 이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49가)의 ‘爲_하산’의 ‘샤’나 (49나)의 ‘爲_하산’의 ‘시’는 자유 변이를 하는 이행태란 말인가?³⁸⁾ 허용(1958, 1963, 1975)에 의하면, 관형절에는 1인칭 어미로서의 ‘-오/우-’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형절에 1인칭 어미가 쓰이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49다)의 ‘너기시논’과 같은 예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기로 한다.

(50) 가. ‘너기시논’의 ‘-(으)시-’는 주어를 높인다.

나. ‘너기시논’의 ‘-오/우-’는 1인칭 어미이다.

다. 대우법에서 1인칭은 흔히 존대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50다)는 적어도 (50가, 나)가 그대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해 준다.

중세어의 ‘-습-’을 허용(1954, 1961, 1963, 1975)에서는 객체 존대로 보았고, 안병희(1961)에서는 주체 겸양으로 해석하였다. 어느 입장이건 ‘-습-’은 구체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을 유동석(1993, 1994, 1995)와 같이 목적어 일치소로 해석할 때, 그 기능은 한 차원 높은 것이 되어 순수히 통사적인 기능을 가지는 추상적인 존재로 변하게 된다.³⁹⁾

일치란 서구어 문법에 전형적인 문법 현상이다. 우리 문법 연구가 많은 적든 서구적인 문법 연구에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서구적인 편향성을 띠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며, 국어를 영어와 똑같은 언어로 만드는 것도 삼가야 한다. 최근 촛스키(1995)는 다시 보편 문법에서 AGR을 제거하고 IP로 복귀하고 있다(양동휘(1996:48~49), 윤만근(1997:277) 참조). 이제 우리 문법에서도 AGR을 제거한다면, 촛스키(1995)를 따르는 것이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치소는 국어 문법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국어에 일치소를 가정하는 논의들이 일치소 범주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사-인상(V-Raising) 절차가 상정되어 동사의 어간이 일치소와 융합하게 되고, 그들의 융합이 다시 인상되어 가령 시제소와 융합하고, 그 융합이 다시 인상되어 어말 어미와 융합하게 된다. 이 과정을 간단히 보이기로 한다. ‘새 언니가 오셨다’를 예로 들어 보기로

38) 고영근(1997)에서는 특히 이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9) 최현숙(1995)에서는 ‘뵈/뵈-, 섬기-, 드리-, 여쭙-’와 같은 것이 목적어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휘 선택의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한다.

- (51) 가. [[[[[새 언니]가 오-]-시-]-었-]-다]
 나. [[[[[새 언니]가 t-]-오시-]-었-]-다]
 다. [[[[[새 언니]가 t_i-]-t_j-]-오시었-]-다].
 라. [[[[[새 언니]가 t_i-]-t_j-]-t_k-]-오시었다].

(51가)는 동사-인상이 적용되기 전의 구조를 보인 것이다. (52나)는 동사 어간 ‘오-’가 일치소에 융합된 구조를 보인 것이며, (52다)는 ‘오시-’가 다시 시제소 ‘-었-’과 융합된 것을 보인 것이며, (52라)는 ‘오시었-’이 ‘-다’와 융합한 것을 보인 것이다. 이 이동은 왜 일어나는가? 영어의 경우와 같이 형태론적인 이유 때문으로 설명된다. 국어에서 동사 어간은 홀로 쓰일 수 없다. 어미를 가져야 한다. 어미도 홀로 쓰일 수 없다. 앞에 다른 요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동사 인상과 융합의 동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51가)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조사나 어미가 구적인 단위 뒤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어의 선문미 형태나 문미 형태가 형태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통사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70년대 중반에 와서야 주목된 것이다. ‘문장 종결사(Sentence Ender)’를 상징한 석경정(1975, 1976)을 비롯하여, 문미 형태나 선문미 형태를 보문자(COMP)나 굴절소(INFL)로 나누어 처리한 일련의 논의들이 이에 속한다.⁴⁰⁾ 조사나 문미 및 선문미 형태가 통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2) 국어 문법 요소의 통사적 성격

국어의 조사와 문미 형태 및 선문미 형태, 즉 국어의 문법 요소는 통사적 구성 뒤에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형태론적 존재가 아니라 통사적 존재이다.

문미 요소나 선문미 요소가 통사적인 존재라는 (52)를 일단 받아들인다면, 형태론적 동기에 의하여 이들이 이동이나 융합을 경험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사적인 존재가 왜 형태론적인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용언

40) 임흥빈(1984, 1987나), 서경목(1984, 1985), 한학성(1987), 안희돈·윤항진(1989), 윤정미(1990), 윤종렬(1990), 강명윤(1990), 안명철(1992), 박진호(1994) 등에서 채택되거나 암시된 방식의 하나이다.

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온 것은 서구 문법의 영향이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물음, 그것은 국어가 형태론적인 굴절을 가지는 언어인가, 즉 활용이나 곡용을 가지는 언어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 학교 문법은 용언의 활용을 인정하고 체언의 곡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어에서 활용이 확립된 것은 최현배(1930)에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현배(1930)에서 활용 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된 것은 분리성이다. 체언과 조사는 분리성을 가지나 용언과 어미는 분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한 것은 언더우드(1890)라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1890)에서도 활용만이 인정되고 곡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곡용을 상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곡용의 범주 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데 있었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는 것을 정연한 변화표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질문을 국어의 활용에 대하여 던질 수 있다. 국어에 활용 범주라는 것이 정연한 체계로 성립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국어에는 활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활용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용언에 문법 요소가 결합된 것을 몇 개 정도 묶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자명한 사실의 하나는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어 문법적인 의미에서 본래적 활용이라는 것을 국어에 설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3) 국어와 굴절

국어에 인구어적인 의미의 곡용이나 활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명백한 의미에서 국어는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문법 이론은 또 한번의 변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어휘 기능 문법이나 정보 기반 문법에서는 일찍부터 활용형을 어휘부에서 직접 도입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⁴²⁾ 이제 촘스키의 생성 문법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촘스키에서는 활용형을 접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촘스키(1995)에 따라 동일한 방식이 양동휘(1994가:189-192/1994나) 및 윤만근(1997: 272-274)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41) 이에 대해서는 임흥빈(1997)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2) 정보 기반 문법에 대해서는 장석진(1993)이 참고되고, 어휘 기능 문법에 대해서는 신수송·류수린(1995)가 참고된다. 신수송·류수린(1995)에서 활용 어미는 접사로 상정된다.

경우 굴절형을 어휘부에서 만들어 오는 것으로 가정하는 문법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문법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어의 특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국어에는 원리적으로 굴절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점검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오시다'와 같은 예의 '-(으)시-'가 AGR이나 존경을 나타내는 기능 범주에 의하여 점검을 받는다고 하여 보자. '-(으)시-'가 그것 자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점검해 준다는 것인가?

(43)에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문법 형태는 고유의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의하여 그 존재가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54) 국어의 문법 요소와 점검 절차

(43)과 같이 국어의 문법 요소는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므로, 그 존재가 다른 요소에 의하여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4. 서술절 범주와 주제 문제

단일문으로 여겨지는 문장에 둘 이상의 '이/가' 성분이나 '을/를' 성분이 겹쳐 나타나 는 현상은 실로 사실 자체에 있어서 국어학이나 언어학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 문장에 주어 가 둘 이상이나 나타나는 것은 인구어 문법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좀처럼 명쾌한 해석이 얻어지지 않았다. 어떤 문법가는 이를 "국어학의 영원한 숙제"라고 표현한 일도 있다.⁴³⁾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이론과 방법이 동원되었고, 이에 의하여 실제로는 많은 문제들이 발굴되고, 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아직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문법가도 적지 않다. 문제를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문법가도 있다. 우리 몸에 밴 것이 인구어 문법이기 때문에 인구어 문법으로 효과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유효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태도의 결함이다. 중주어 현상은 일본어에도 나타난다. 그 해석법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 해결을

43) 이러한 표현도 문제 해결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를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비관주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해결 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문제삼으려는 것은 이른바 중주어 현상⁴⁴⁾ ‘서술절’을 내포절로 가지는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법이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학교 문법[1985, 1996]이 채택하고 있는 해석법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떠한 해석법보다도 문제가 많은 해석법이 일반화되고 일반적인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술절이란 범주의 성립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은 이미 임홍빈(1974)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 문제점은 남기심(1986)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성기철(1985)에서는 ‘-(으)시-’ 논의를 위하여 서술절 분석을 다시 받아들였고, 최근 임동훈(1996, 1997)에서도 다시 ‘-(으)시-’ 논의를 위하여 서술절 분석을 받아들였다. 서술절은 ‘문장 술어’라는 이름으로 박병수(1973, 1982, 1983, 1988)의 일련의 논의와 GPSG적인 접근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첫 번째 명사구에 대한 초점 해석이나 ‘-에 관하여’ 해석에도 주목하고 담화 추상 서술어와 같은 것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문장 술어를 설정하는 이익환(1987)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서술절 분석이 채택되고 있다. 격 문제와 관련하여 임영재(1985)에서 채택되고 있는 구조도 원리적으로는 서술절 구조이다.

서술절 분석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첫눈에는 매우 형식적이며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강력한 이유이다. 그 결함이 단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임홍빈(1974)에서는 서술절이 다른 절과 달리 절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다른 절과 달리 서술절은 품사 상당의 절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서술절 분석은 기능이 다른 다양한 구성을 동일하게 다루는 결함을 가진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서술절’이란 말에서 ‘서술’이란 말이 흔히 듣는 말이기 때문에 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서술절’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주이다. 그것은 문장의 종류를 그 품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닌, ‘동사절’이나 ‘형용사절’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4) ‘중주어(multiple subject)’ 현상은 흔히 ‘이중 주어(double subject)’ 현상으로 불린다. 명명 자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다. 문제의 요소가 ‘주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녕(1969)에서 이 문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명칭은 ‘주격 중출’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문제의 요소가 주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중립적인 명칭은 ‘이/가’ 중출일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중주어’ 또는 ‘이중 주어’란 술어도 자유롭게 쓰기로 한다.

(55) 가. 철수가 [동생이 예쁘다]

나. [철수가 동생이 예쁨]-이 문제이다.

다. [철수가 [동생이 예쁨]]-이 문제이다.

라. [[철수가 [동생이 예쁘-]]-ㄴ]이 문제이다.

서술절 분석에 의하면 (55가)에서 ‘동생이 예쁘다’가 서술절이다. 그것이 ‘철수가’에 대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55나)에서는 무엇이 서술절인가? (55다)에서와 같이 ‘동생이 예쁨’이 서술절이 된다고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명사절이다. 절대로 서술절이 아니다. 이번에는 (55나)가 (55라)와 같이 분석된다고 하여 보자. ‘동생이 예쁘-’만이 서술절로 ‘철수가’에 대한 서술어가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서술절은 서술절만으로 주어가 될 수 없다. 다시 명사화소에 의하여 명사화되어야 한다. 서술절이 다시 명사절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서술절이란 서술어가 이루는 절이란 뜻이 된다. 이를 동사절이나 형용사절 혹은 용언절과 같이 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련에 의한다. 그러나 명사절이라는 것이 그 서술어의 품사를 토대로 하는 명칭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 문미 형식이 ‘-ㄴ/음’이나 ‘-기’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것이지, 그 서술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명사절을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절의 이름을 붙이려면, 가령 (55가)에서 ‘동생이 예쁘다’는 ‘종결 어미절’이라고 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범주이다.

서술절이 절 표지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나 서술절이 품사 상당의 명칭을 가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서술절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그 존재가 동기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술절은 바로 (55가)와 같은 예 밖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동기화해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술절 분석이 포괄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56) 가. 철수가 키가 크다.

나. 학생이 둘이 있다.

다. 값이 백 원이 알맞다. (김광해(1983) 참조)

라. 사장이 고민이 많다.

마. 나는 음악이 좋다.

바. 책이 읽기가 어렵다.